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6월 21일(토) 19:4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6월 21일(토) 19:40**

**‘더헤븐 마스터즈’ 2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더헤븐 마스터즈 |
| 2 | 기 간 | 2025년 6월 20일(금) ~ 6월 22일(일) |
| 3 | 장 소 | 더헤븐 [West(OUT) / South(IN) 코스] |
| 4 | 주 최 | 더헤븐리조트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31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배소현, 이동은, 박보겸, 김민주, 김민선7, 홍정민, 박현경, 정윤지, 유현조  박지영, 지한솔, 서어진, 김시현, 서지은, 송은아, 박희영, 박서진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이다연 2라운드 중간합계 13언더파 131(66-65)타 \*19시 30분 기준 단독 선두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392>

**경기 소감?**

1라운드 잔여 경기 때부터 감이 좋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초반에는 퍼트가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, 한두 개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‘꼭 넣어야 한다’는 부담이 줄어서 퍼트도 자연스럽게 잘 됐던 것 같다. 오늘도 좋은 성적으로 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.

**이번 대회에서 '편하게 치고 싶다'고 하는데, 그 의도대로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는지?**편하게 치자는 생각에 더해 성적도 잘 나와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. 스스로에게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다.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잘한 점을 스스로 칭찬해주려고 했고, 그런 태도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어진 것 같다.

**최근 몸 상태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. 그런 시기를 잘 극복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지?**

몸이 안 좋을 때도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고, 힘든 시기를 견디고 나면 반드시 다시 좋은 흐름이 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.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그 순간을 견디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가고 있다.

**퍼트에 강한 비결이 있는지?**사실 최근까지 퍼트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연습량을 늘렸고,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다.

**현재 우승 경쟁 구도에 있다. 이제는 우승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지?**‘기회니까 반드시 잡아야 한다’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느낀다. 지금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, 내가 해야 할 플레이를 제대로 해내는 데 더 집중하려고 한다.

**내일 최종 라운드는 우승이 걸려 있는 경기다.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계획인지?**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으려고 한다. 지금까지의 두 라운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, 그 자체로 스스로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다. 마지막 라운드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,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

**◈ 유현조 2라운드 중간합계 11언더파 133(69-64)타 \*19시 30분 기준 단독 2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46>

**오늘 경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잘됐다고 느끼는지?**

잔여 경기 때 퍼트가 잘 됐다. 그런 흐름이 2라운드까지 이어져 좋은 결과로 연결됐다.

**US여자오픈을 다녀온 이후 오히려 컨디션이 더 올라온 듯한 모습이다.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?**

체력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. 그래도 경기력은 올라왔고, 실력적으로 더 성장한 느낌이다.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이 이번 대회에도 도움이 됐다.

**내일 최종 라운드가 남았다. 어떤 부분에 집중해 플레이할 계획인지?**

아직 2라운드를 마친 선수가 많지 않아서 순위를 예측하긴 어렵다. 그래도 이 코스에서는 버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, 내일도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계획이다. 찬스가 오면 과감하게 공략하겠다.